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최소화한다

### 광주시, 2023년 생활편익사업 6건·환경문화사업 2건 선정 국비 등 51억원 투입... 기반시설 확충·도심 휴양공간 조성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진입로 개선 사업 등을 확대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선정된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사업 6개와 환경문화사업 2개이며, 국비 46억원, 시·구비 5억원 등 총 51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7억원이나 추가된 것이다.

생활기반사업에는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도로 폭이 좁아 주민 불편이 컸던 진입로 5곳을 확장하고, 우기 시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1곳을 정비

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사업비 13억원이 배정됐으며, 서구 서창동 팔학산 등 생태자연 여건을 활용한 누리길 산책로를 개설하고 복구 충효동의 환벽당 등 가사문학권의 문화자산과 연계한 증암천 경관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시민 휴식공간 등 도심 내 친환경 여가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온 반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영

향을 주는 행위 제한이 등에 따른 주민 불편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불편 경감 및 편익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총 241개 사업에 1069억원(국비 869억, 지방비 200억원)을 들여 마을 진입로 확장, 농·배수로 및 소화전 정비, 누리길 조성 및 경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원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사업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지역 우수 문화자원을 발굴해 다양한 여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박람회**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는 지난 17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캠프지기·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과 함께 자원봉사 박람회와 원탁토론을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임이엽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날 "생활 속에서 참여와 나눔이 넘치는 자원봉사 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1000여 캠프지기님께 진심으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점검

### 19~30일...지도·점검반 20팀 구성

광주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 총 20팀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 수가 빈번한 피시(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4만8318곳, 조례지정 금연구역은 2813곳에 이른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후 야외 흡연이 늘어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

### 농성빛어울채 입주민에 전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농성빛어울채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금 일부를 입주민 에너지 지원금으로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농성빛어울채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투자해 운영중이다.

273kW 규모의 농성빛어울채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348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162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낸다. 도시공사는 발전 수익금의 일부를 에너지 지원금으로 활용해 입주민 공용부 전기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또 임대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 가능한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발전



수익금을 일부를 입주민에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입주민 에너지 지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 발전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상반기 1만1126필지 조상 땅 찾기 토지자료 제공

광주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대장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 기본소생술·가스, 교통 안전체험 10월1·15일 북구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가족 중심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연다.

행사는 10월1일과 10월15일 북구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서 열렸다.

광주시는 생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법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해 시민이 실제 재난 및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안전연합, 교통문화연수원, 해양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호

남대 응급구조학과, 광주대 간호학과 등 10개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며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 및 안전문화 홍보 등을 실시한다.

체험부스 주요 내용은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기본소생술 체험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재난 안전체험 ▲가스·교통안전체험 ▲생존팔찌 만들기 체험 ▲신체검진 및 건강지킴이 체험 ▲푸드아트 테라피 체험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및 안전문화 확산 통합슬로건 홍보 등이다. 스태프투어 이벤트도 실시한다. 모든 부스를 체험하는 시민에게는 휴대용소화기, 지갑형 응급처치용품세트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이번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재난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AI보이스봇' 도입

### 구비서류 안내 등 보상업무

### 24시간 음성인식 응대 서비스

광주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보상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24시간 민원응대 서비스인 'AI보이스봇'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AI보이스봇'은 공공기관 전용 AI전화상담 서비스로, 클라우드 기반 인바운드(수신), 아웃바운드(발신) 업무처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양한 민원응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업무

와 업무전환을 분리·운영해 방문 민원 감소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연결을 원할 때는 대표번호로 신속하게 연결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AI보이스봇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상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AI보이스봇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해 분량, 주택관리 및 공급, 시설 운영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상업무 관련 AI보이스봇 전용번호는 070-4210-8497이며, 음성인식을 통해 계약장소와 운영시간 안내, 구비서류 문자 발송, 직원연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